

# 화순 고인돌 봄꽃축제 내일 팡파르...전시·공연 다채

### 세계문화유산 화순 고인돌 유적지서

### 봄꽃·야생화 천지 '봄의 향기' 전시관

'2024 화순 고인돌 봄꽃축제'가 18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화순 고인돌유적지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이번 축제는 화순 도곡면 효산리~춘양면 대신리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군 일대에서 다채로운 전시·공연 행사로 꾸며진다.

봄꽃과 야생화, 다육식물로 꾸며진 '봄의 향기' 전시관은 너비 8m, 길이 40m 규모의 하우스 3동으로 구성된다.

첫째 동은 초화류를 사용해 꽃강길, 개미산 등 화순의 명소를 다채롭게 표현했고 둘째 동은 소박한 야생화 전시존으로 꾸몄다.

셋째 동은 다육식물 주제관으로 '2024 다육

가드닝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작품들을 전시한다.

축제 기간 물멍 존에서는 'DM 버스킹'이 펼쳐진다. 20일에는 가수 최백호와 양희은이 출연해 7080세대의 감성을 자극할 예정이다.

21일 박혜원, 27일에는 이재성과 권인하 등이 출연해 관광객들을 만난다.

향토 음식과 농특산물 판매 부스가 들어설 고인돌 장터에는 '추억의 디박스'가 운영된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봄소풍 가기 좋은 4월,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장을 찾아 여유를 즐기고 일상의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며 "노랗게 물든 유채꽃과 푸른 하늘을 벗 삼아 자연과 하나



2024 화순 고인돌 봄꽃축제가 18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화순 고인돌유적지에서 개막한다. (사진=화순군 제공).

가 되는 치유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박순철기자

# 장성군 "방치됐던 폐교, 주민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

### 북하면 약수중에 '오감약수터' 조성

6년 전 폐교됐던 장성군 북하면 약수중학교가 마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군에 따르면, 2018년 폐교한 약수중학교에 지역민을 위한 공유공간 '오감약수터'가 조성되어 최근 개소식을 가졌다. 약수리에 자리잡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주관하고 북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협력해 추진한 '폐교 활용 정책사업'을 통해 잔디 시제, 족구장 설치, 옥외화장실 개선 등 기반공사를 시행했으며 사업비는 총 3억 원이 투입됐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반백 년 가까이 마을의 정서적 중심지로 기능해 온 약수중학교가 주민 행복 공간으로 재탄생했다"며 "북하면에 한층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하면은 오감약수터 개소식 이후 면소재지 인근 도로변의 쓰레기를 줍는 등 1시간 가량 봄맞이 대청소 시간을 가졌다.

장성=김수권기자



# 구례군, '2024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 착수보고

구례군은 지난 16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4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 운영 대책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김순호 군수, 이길용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원장과 박람회 추진위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람회 운영 대행사로 선정된 ㈜아이컨컴퍼니의 박람회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 발표와 질의응답, 의견 교환 순서로 진행됐다.

구례군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을 반영 세부 추진계획을 보완하고 탄소중립과 흙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완성도 높은 박람회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적극적인 홍보와 양질의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많은 군민과 관광객이 건강한 흙의 가치를 공유하는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는 9월 중 주재관, 기업관, 체험관, 판매장터 등으로 구성하여 구례군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구례=박진호기자

# 간암 조기 예방...나주시, C형간염 '선착순 무료' 검사

### 300명 선착순...양성 확인 시 신속항원검사

나주시보건소가 C형간염 조기 발견·치료를 위해 선착순 무료 항체 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2년 기준 나주에선 인구 10만명 중 12명이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나주시보건소에 따르면 해당 질병은 C형 간염 바이러스(hepatitis C virus- HCV)에 감염됐을 때 이에 대응하는 신체 면역반응으로 인해 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주로 C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과 체액 등을 통해 감염된다.

성적인 접촉이나 수혈, 혈액을 이용한 의약품, 오염된 주사기의 재사용, 소독하지 않은 침의 사용, 피어싱, 문신을 새기는 과정 등에서 감염될 수 있다.

대부분 무증상으로 적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급·만성 간질환으로 진행돼 간경화 또는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자부담 치료비만

600만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나주시보건소는 올해 상반기 시민 300명을 대상으로 C형간염 항체 무료 검사를 선착순으로 추진한다.

일반 검진 기관에서 C형 간염 검사를 하면 1만8000원을 부담해야 된다. 나주시는 상반기 시민 반응도가 높으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오는 8~9월께 2차 무료 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검사가 선착순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선 신분증을 지참해 나주시 보건소 임상병리실을 서둘러 방문해야 된다. 검사 결과는 1주일 후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양성 판정을 받은 40세 이상 시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평생 무료 간암 검진 제도를 안내하고 대상자 등의 시 서비스를 연계 해준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C형간염은 예방 백신이 없고 국가건강검진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검사가 필수인 질환"이라며 "선별검사를 통한 조기 발견과 적기 치료를 통해 간암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송준표기자

# 담양군, 악성민원 대응 교육 개최... 공무원 보호·안전한 공직 분위기 조성



### 분야별 교육 추진

담양군은 지난 16일 담양문화원 인문교육관에서 군 공직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악성민원 대응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악성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공직자가 늘어남에 따라 마련됐다.

공직자 보호 및 특이민원 사전 대응을 위해 검사 출신 변호사인 신현성 강사가 강의를 맡았으며, 폭언·폭행·협박·성희롱·업무방해와 같이 갈수록 늘어나는 다양한 특이민원에 대해 풍부한 법적 지식을 통한 분야별 대응 요령을 제시했다.

특히, 악성민원과 불만민원을 구별해 민원인을 응대하는 전략, 악성민원에 대한 분야별 대

처방식에 대해 강사가 공직에 몸담은 기간 겪었던 생생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강의를 펼쳐 참석한 공직자들에게 큰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

이병노 군수는 "악성 민원에 대처하는 대응 방식은 담양군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교육이 공직자들의 민원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악성 민원 발생 시 부서장을 중심으로 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초동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담양군은 악성 민원 피해 공직자 보호와 안전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악성민원대응반 구성·운영 ▲민원실, 읍·면사무소 안전 장비(비상벨, CCTV, 민원창구 가림막) 설치 ▲휴대용 보호장비(목걸이형 카메라) 배부 ▲피해 공직자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등 악성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담양=박종영기자



#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관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